

NEW IDEAS FOR YOUR HOME AND LIFESTYLE

2018 DECEMBER
WWW.CASALIVING.CO.KR

[까사리빙]

CASA

LIVING

따스한 장식불의 이퀄링
추위를 달래는 벽난로

컬러로 채운 그날의 분위기
크리스마스 팔레트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한 공간
새로 생긴 숨 탐방기

2019년 디자인&리빙 페어 캘린더
디자인 영감을 찾아 떠나는 여정

FURNITURE

다이닝 চে어 매치법
혼자만의 안락의자

HOME

카사 포르나세티
이토록 자유로운 무채색의 변주

LIFESTYLE

홀리데이 가든
SWNA 이석우 디자이너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조명 리스트부터 공간별 가이드까지

오늘의 조명

₩ 7,500원

ISSN 1224-4993



9 971224 499302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은유로서의 디자인

목적과 기능을 ‘형태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굴리엘모 폴레티가 빚어낸 뉴 컬렉션은 주변의 공기와
분위기마저 디자인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에디터 홍지은

영감과 자극의 재료는 도처에 널려 있다. 가구도 다르지 않아서 테이بل 하나의 만듦새가 일상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신예 디자이너 굴리엘모 폴레티(Guglielmo Poletti)가 선보인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 컬렉션이 꼭 그렇다. 의자와 식탁, 조명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올해 PAD 런던 페어 기간 중 전시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루미늄을 소재 삼아 완벽한 균형과 비례를 보여주는 작품은 언뜻 미려한 건축물을 떠올리게도 한다. 폴레티는 지난 1월에 열린 메종&오브제 라이징 밸런트 어워즈에 이름을 올리며 디자인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는데, 당시 “단순함을 극단으로 밀어냈다”는 평가는 이번에도 유효해 보인다. 물성의 본질에 집중해 원시적이면서도 지극히 정제된 세계를 구축해가는 디자이너.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지우는 그의 한 곳에서 디자인의 오늘 아니 내일을 발견한다.

하나의 조각 혹은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이퀄리브리엄 컬렉션. 날렵한 직선
디자인이 빼어난 균형을 보여준다.
굴리엘모 폴레티 스튜디오.

©Guglielmo Poletti